



임영석 /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석해
by Im, Yeong-seok, KIRA

약력

-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졸업
-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재학
- 전 서울시건축사협회 간사
- 전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

회복과 성장

recovery and growth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일까.
2% 부족했던 올해를 마지못해 평가해 보고 내년에는 꼭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속에 계획을 세워 보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괜히 마음만 붕 떠서 연일 허둥대기만 한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방송에서 흘러나오고 새해 다이어리를 보면 더욱이 그렇게 된다.
그렇지만 이시기에 꼭 회복하고 성장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고3 딸아이가 있다. 대학에 가면 그토록 하고 싶은 10가지를 책상머리에 붙여 놓았다.
몸무게 12kg감량, 여행 다니기, 염색하기, 하루 종일 수다 떨기, 운전면허 취득, 보컬 밴드 결성... 그야말로 12년 동안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날,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적어 놓았던 것이다.
군 제대 후 한권의 책을 구입했는데 나름대로 감동이 되어 책 저자를 깊이 짝사랑하고 있다가
올해 여름 잠실 체육관에서 20여년 만에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평소 소망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표현할 때 신기하게도 이루어지는가 보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 지를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찬찬히 살펴보고 종이 위애다 솔직하게 기록해보자.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한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때,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마냥 즐겁다. 그래서 즐기는 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잘하는 것이 없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좋다.
각 사람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분명 자기만의 크고 비밀한 것이 있을 것이다.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나만의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 떠나가는 여행을 해보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완벽히 책임을 질 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열면 흥하고 닫히면 쇠한다고 했던가.
과감히 해묵은 장막을 걷어버리고
바깥세상의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며 재충전해야 한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처 복종케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할 준비를 해나갈 때
비로소 성장이 뒤따르는 것이다.

비상을 향하여 재충전하자

생략쥬페리는 '어린 왕자' 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한다.
보이는 것들에 혹은 어쩔 수 없는 틀에 매여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걸까.
내가 아닌 다른 이가 되어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걸까.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그 어떤 집착을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있는 자기 르네상스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시도가 포기다.
솔개는 최고 70세의 수명을 살기 위해 40세가 될 때 부리와 발톱 그리고 깃털을 스스로 제거하는 고통스런 수행의 길을 통해 새로운 변신을 한다.
그리고 다시 비상하여 30년의 수명을 더 누린다고 한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토록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의 기쁨을 꿈꾸는 자가 되기보다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다.
미국 제44대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
정말 버락 같이 등장한 인물이다.
최초의 흑인대통령인 그는 '변화와 단결 그리고 희망' 을 내세우며 정치 고질병인 당파성과 네거티브 정치의 청산을 외쳤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영향일까.
그야말로 다양성에 기초한 그의 생각은 항상 외부로부터 열려있다는 것이다.
경선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기용하고 전 정부의 로버트 게이츠
현 국방부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더 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그릇을 엿볼 수가 있다.
열면 흥하고 닫히면 쇠한다고 했던가.
과감히 해묵은 장막을 걷어버리고 바깥세상의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며 재충전해야 한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처 복종케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할 준비를
해나갈 때 비로소 성장이 뒤따르는 것이다. ■